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황 윤 정(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I. 서론

사회적 대인관계가 부모중심의 단일한 관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발달에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애착과 개인적 요인인 자기역량지각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해봄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것에 비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됨으로서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학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단체 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하고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최근의 빠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복잡한 학교 환경의 변화는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만, 절망, 불평,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비행 행위를 일삼게 되며,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자아개념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는 물론 아동 자신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김세한, 1994; 정무성, 1998).

이처럼 학교적응은 아동의 미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중학교, 고등학교 적응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응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이전에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학

교생활과 사회적응을 더 잘하며(윤정희, 2002), 안정된 모애착 관계 형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영아기 이후의 사교성, 정서적 기질, 독립성, 협력, 신뢰 등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연, 백정빈, 2008).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초기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은 성장 후에도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원형으로 작용한다고 한 Bowlby (1982)의 주장처럼 안정된 애착 수준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에 부모애착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면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역량지각 역시 학교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역량지각은 인간이 가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일종의 가치기 또는 자아개념의 형태로서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개념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부모나 주의 사람들의 태도, 양육방식,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가정 및 부모에게 관련된 여러 변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에게 긍정적 사회관계, 자아회복력, 능력 그리고 자신감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귀숙, 정영옥, 이나혜, 2003). 즉,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되는 아동은 자기역량지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현실 수용감이 뛰어나 사회나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기역량지각이 부정적인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이 가진 사회적 기술을 타인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자신을 가치없다고 느끼게 됨으로 대인관계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Clark & Arkowitz, 1975). 이렇게 개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정서의 지각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Barlow, Chopita & Turovsky, 1996; Clark & Watson, 1991) 학교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긍정적으로 자기역량지각을 하는 아동은 학교적응에 유리하지만, 부정적인 자기역량지각을 하는 아동은 학교적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기초하여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역량지각, 학교적응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인(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종속변인(학교적응)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매개변인(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매개변인(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종속변인(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Baron과 Kenny(1986)는 매개 효과의 검증단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1-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독립)은 학교적응(중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독립)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매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학교적응(중속)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독립)의 영향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매개) 통제 시에도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 7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교적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38문항 중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에서 그 값이 낮은 5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33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33점에서 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50문항 중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에서 그 값이 낮은 10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40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로 나타났다.

3) 자기역량지각

일상생활의 영역들에서 학령기 아동들 자신이 지각한 유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

(1985)의 아동용 자기역량지각검사(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SPPC)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6문항 중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에서 그 값이 낮은 10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26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항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장을 결정한 후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약간 그렇다’란에, 나와 정말 비슷하다면 ‘정말 똑 같다’란에 표시하는 형태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26점에서 1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문제 1-1, 1-2, 그리고 1-3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3의 경우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77, VIF값이 1.3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아 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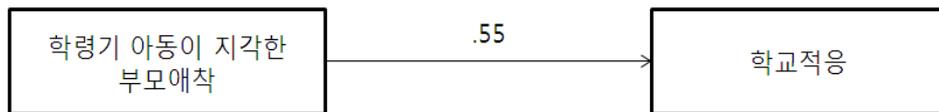
<표 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에 대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td. Error	β	F값 (df)	R ²	상수 (Std. Error)
1단계	독립변인	.39	.02	.55*	328.62 (1, 758)	.30	60.37 (3.45)
	→종속변인						
2단계	독립변인	.22	.01	.48*	228.02 (1, 758)	.23	40.64 (2.30)
	→매개변인						
3단계	독립, 매개변인	.23	.02	.33*	329.63 (2, 757)	.47	30.87 (3.59)
	→종속변인						
		.73	.0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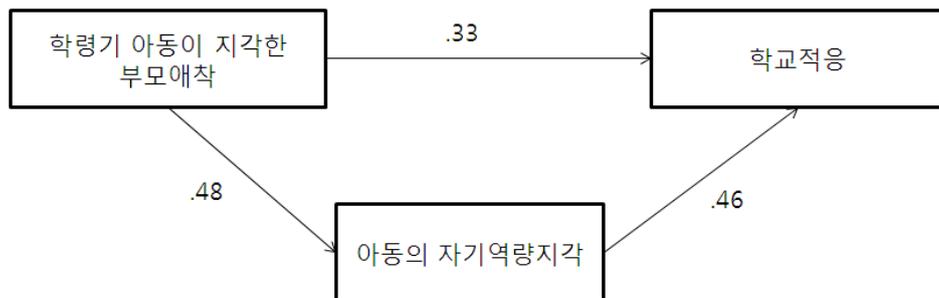
*p<.05

<표 1>의 1단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beta=.55$, $p<.0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자기역량지각에 정적인 영향($\beta=.48$, $p<.0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나타나듯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통제했을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beta=.55 \rightarrow \beta=.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짐을 나타낸다. <그림 1과 그림 2 참조>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1>의 1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1>의 2,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



<그림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한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

IV.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 760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가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과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역량지각 역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지각을 통제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이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 영향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사실은 학교적응에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보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보다 현재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간 상호관계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학령기 아동 자신의 자기역량지각에 대한 강화훈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역량 훈련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며 일관성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자기역량지각 훈련이 남아와 여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남아와 여아간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남아와 여아의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적응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6(2), 259-279.
- 김세한(1994). *교육심리학*. 서울: 서원출판사.
- 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179-223.
- 유병선, 이지연, 이채희(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3), 3-14.
- 윤정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지연, 백정빈(2008).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논단*, 8(1), 57-78.
- 정무선(1998). 초등학생 행동의 합리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1, 93-1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

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rlow, B. H., Chopita, B. F. & Turovsky, J.(1996). Fear panic Anxiety and disorder of emotion. In D. A. Hope(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pectives on anxiety panic & fear. Vol. 432, (pp.251-288). Lincoln University of Nevraska.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Clark, D. A., & Watson, D.(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iatric evidence and texonomic impl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6-336.

Clark, J. V., & Arkowitz, H.(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 36, 211-221.

Harter, S.(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장 영 은(중앙대학교 교수)

발표된 논문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자기역량지각이라는 자아개념의 한 부분을 통해 학교 적응에 어떻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여러 아동기의 문제 - 아동우울, 또래간 폭력 및 따돌림, 자아개념부족, 자기 주도성의 부족 등-의 근원을 파헤치다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부모-자녀 관계가 있을만큼 부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양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형성된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라고 묘사된다. Bowlby (1982)는 모든 연령의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접근성 및 반응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더 나은 사회적, 정서적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의 애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연구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애착은 새로운 환경을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안전기지로 작용함을 밝혀왔다. 특히 안정된 애착이 올바른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발표되어오고 있다 (Fass, & Hubman, 2002; Hoffman, Levy-Shiff, & Ushpiz, 1993; McCormick & Kennedy, 1994). 예를 들어 Laible, Carlo와 Roesch (2004)는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칩과 동시에,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로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Paterson, Pryor와 Field (1995)은 어머니 및 어머니와 형성한 안정된 애착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대처능력,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자아개념의 세 차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들도 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유의한 관계를 지지하는데, 이 사라와 박혜원(2005)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걸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또래 및 교사의 지지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예측하였으며, 홍세희 등(2006) 역시 자아개념의 변화패턴을 추정한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가 자아개념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애착이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

고자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유의한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침을 밝혀 부모 애착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겠다. 특히 학교적응이 또래 관계 및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지도나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
겠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할만한 몇 가지 사
항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분석을 하는 데 있어 아동 및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 학교 적응, 그리고 자기역량지각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여 결과
에 제시하길 바란다. 이는 자기역량지각이 가지는 매개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를 확장시켜
부모애착이 가지는 간접적 영향력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의 효과를 포함시키길 제안하는 바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
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발달적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또래는 애착의 대상으로 그 역할이 커지게 되고, 이 시기 또래관계는 학교 적
응 및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혜, 고윤주, 1999; 홍세희, 박언하, 홍혜
영, 2006; Paterson, Pryor & Field, 1995; Vandell & Hembree, 1994). 다시 말해, 사회생활의 폭
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애착이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
로, 부모 애착 외에 또래와의 애착 관계도 학교 적응의 관련변인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넷째, 제시한 경로모델의 성차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장영은(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남아에 비해 여아의 자아개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아들의 관계지향
성이 부모와의 애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경
로모델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게 되면 그 경로의 영향력의 크기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도 있으며, 성차의 발견은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